

공무원 주거 안정 실현 전북교육 경쟁력 강화

장거리 출퇴근 공무원 등 110여명에 주택임차비 44억원 지원
“주거 부담 감소했다” 응답 98%로 이용자 만족도 높게 나타나

공무원 주택임차비 지원 제도가 장거리 출퇴근 공무원 등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공무원 주택임차비 지원 사업을 통해 5년 이하 저경력 공무원과 장거리 출퇴근 공무원 등 총 110여명에게 44억원을 지원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공무원 주택임차비 지원은 출퇴근이 힘든 곳으로 인사발령이 난 공무원이 관사 부족으로 입주하지 못할 경우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대어해주는 제도다. 교직원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통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전북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됐다.

1인당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받은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면서 주거 안정으로 인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지난 11월 주택임차비를 지원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거 부담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98%,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90%로 집계됐으며, 주택임차비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또한 92%로 높았다. 이밖에 ‘관사가 없어서 주거 어려움이 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생활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등의 답

변도 있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관사 입주대기자 해소 및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일선 기관(학교)에서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교직원이 없도록 안내문을 제작·배포했으며, 주택임차비지원관리 시스템을 통해 주택임차비를 지원받은 공무원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최선자 재무과장은 “공무원 주택임차비 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사에 입주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택임차비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 56명 연구자, ‘세계 상위 2%’ 선정

최근 1년 기준 56명, 전 생애 기준 41명… 국제 학술 역량 인정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에 재직하는 56명의 연구자가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와 글로벌 출판사 엘스비어(Elsevier)가 공동 발표한 ‘세계 상위 2% 연구자(World's Top 2% Scientists)’에 선정됐다. 이는 전 세계 약 900만 명의 연구자를 표준화된 인용 지표(C-Score)로 분석한 결과로, 의·치·병원계를 제외한 국가 거점국립대 중 3번째로 많은 규모다. 이번 선정은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Scopus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순 인용 수가 아닌 표준화된 인용 지수 △h-인덱스 △공저자 보정 hm-인덱스 △단독·제1저자·교신저자 기여도 등 6개 핵심 지표를 종합한 C-score(Composite Score)’를 활용해 발표하는 글로벌 권위의 연구 영향력 인증이다. 분석은 1960~2024년 전체 연구 실적을 평가하는 생애 기준(career-long)과 2024년 1년 성과에 기반한 최근 1년 기준(single-year)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전북대는 최근 1년 기준으로 총 56명의 교원이 이름을 올렸다. 주요 분야별로는 △Enabling & Strategic Technologies 분야 정창규 교수, 트란류이탄 교수 △Chemistry 분야 김애란 강의초빙교수, 유동진 교수, 김용현 교수, 김정곤 교수 △Agriculture, Fisheries & Forestry 분야 이준하 교수, 황인호 교수, 강준원 교수 등이 포함됐다. /김재훈 기자

생애 기준에서는 총 41명의 전북대 연구자가 선정됐다. 주요 선정자료는 △Physics & Astronomy 분야 한윤봉 교수, 나석인 교수 △Chemistry 분야 강길선·나창운·장정석 교수 △Enabling & Strategic Technologies 분야 윤영상·김남훈·유연태 교수 △Engineering 분야 이태희 교수, 김민영 교수, 권순영 교수 등이 포함된 전북대의 연구 저력을 재확인했다.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이번 선정은 우리 대학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영향력과 학술적 기여도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이러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 공동연구 확대, 연구 생태계 혁신을 통해 글로벌 연구 허브 대학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교육청, 하반기 중대재해 예방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2025년 하반기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을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이루어진다. 점검대상은 단설유치원 34·초 407·중 159·고 63·특수 6 등 도내 모든 공립학교를 비롯해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총 709개 기관이다. 점검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의 점검항목으로 △안전·보건 목표, 경영방침 등 총사자 안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여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충실한 업무수행 등이다. 각급 학교와 기관은 1차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뒤 점검 결과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2차 현장점검을 추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집중 관리한다. 특히 기관별 자율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안전보건 이행 점검은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무”라며 “앞으로도 안점점검·교육·컨설팅을 연계한 예방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생명의 숨결! 생명의 미래’ 원광대, 내일 전북생명서비스산업 포럼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생명의 숨결! 생명의 미래!’를 주제로 전북생명서비스산업 포럼을 개최한다. 원광대 글로벌대학사업단과 지역 혁신본부, W.I.T.벨리혁신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생명서비스·치유 산업의 발전 방향과 지역 혁신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전북 미래 전략산업의 본격적인 도약을 위한 협력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 주제발표는 △이현동 캄스페이스 대표의 ‘치유는 산업이다: 전북의 다음 10년을 바꾸는 생명서비스 전략’ △양영관 한국지역개발연구원 소장의 ‘전북특별자치도의 치유관광과 생명서비스산업 연계전략’ △이정환 원광대 한방병원장의 ‘전북 생명서비스산업은 어떻게 글로벌 산업의 무기가 되



는개’ 순으로 진행된다. 2부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생명서비스(치유) 사업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이 펼쳐진다. 지역 지·산·학·병·연이 함께 구축하는 생명서비스 산업 생태계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교대, ‘2025년 전북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실증 성과공유회’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가 지난 11일, 도내 교원과 실증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북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실증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2025년 전북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실증 프로그램 성과와 사

례를 공유하고, 교사와 기업 간 협력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실증 과정은 에듀테크 실증 프로그램과 1차년도 실증 경험이 있는 교사 및 기업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김재훈 기자

MSG · 핵산계 조미료, 된장국 깊은 맛 높인다

전북대 강다은 학생, 전통 된장의 풍미 구조 과학적 규명 ‘우수’
120명 소비자 분석 맛·정서 반응 ‘뚜렷’… K-푸드 개발 활용 기대



흔히 MSG·핵산계 조미료는 그동안 부정적 인식이 다소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미료가 된장국의 깊은 맛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연구를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강다은 석사과정생(사진, 지도교수 김미나·경민)이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발표해 이목을 끌었다. 이 연구는 전통 발효식품인 된장의 풍미 구조를 정량적 분석을 통해 밝힌 것이다. 된장국 맛 최적화와 식품산업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으며 2025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 포스터상을 받았다. 연구팀은 전통된장을 기반으로 다섯 가지 된장국을 제조해 MSG·핵산계 사용 여부와 핵산계 조미료(MSG·GMP)와의 병용에 따른 맛 변화와 소비자 기호도를 비교했다. 총 12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분석 결과, MSG를 첨가한 시료(S2~S5)는 무첨가 대조군(S1)보다 깊은맛·감칠맛·구름 조화감 등 전반적인 맛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MSG와 핵산계 조미료를 모두 사용한 삼중 조합(S5)은 깊은맛과 감칠맛은 물론 전체 기호도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기록했다. 한미 인지도 분석에서도 S5는 ‘잘 숙성된’, ‘감칠맛’, ‘깊은맛’ 등 긍정적 향미 용어와 밀접하게 연관된 반면, 무첨가 시료S1은 ‘쓴맛’, ‘향이 약함’ 등 부정적 용어와 연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감정 반응에서도 MSG·핵산계 조미료를 포함한 시료들은 ‘기쁜’, ‘따뜻한’ 등의 긍정적 정서와 가까웠던 반면, S1은 ‘억제된’ 등 부정적 감정과 연결되는 등 맛과 정서 반응 모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강다은 학생은 “된장국의 깊은맛

이 단일 성분이 아닌 MSG와 MP·GMP 같은 감칠맛 증진 물질이 상호작용해 시너지가 높아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점이 흥미로웠다”며 “특히 삼중 조합이 기호도뿐 아니라 정서적 반응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점에서 산업적 확장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도교수인 김미나·경민 교수는 “전통된장의 깊은맛을 소비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크다”며 “이번 분석 결과가 구름류·찌개류·즉석식품 등 K-푸드 제품 개발 과정에서 소비자 선호도를 높이는 맛 설계 전략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IPET, 과제번호 322023041SB010)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대상(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 등과의 민·관·학 공동연구로 진행됐다. /김재훈 기자



지난 11~1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강당에서 2025 학력향상도전학교 성과공유회'가 열렸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전북교육청 학력향상도전학교 효과 ‘톡톡’

개별 맞춤형 학습지원 효과 확인… 올 한해 성과공유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1~12일 본청 강당에서 2025 학력향상도전학교 성과공유회'를 열고 올해 학력 신장 지원 정책의 성과를 공유했다. 학력향상도전학교 중·고등학교 100개교 교장(감)과 담당교사, 학습코칭 연수회 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성과공유회는 올해 학력향상도전학교의 운영 성과를 정리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모델을 공유해 내년도 학교 현장 적용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학력향상도전학교는 맞춤형 학습지원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워주는 학교로 △학습동기 부여 △학습역량 함양 △교과학습 지원 △학습관리 지원 등 도전과제 수행으로 학생의 학력신장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88개교를 시작으로 올해 100개교까지 참여 학교가 확대됐으며, 2026학년도에는 3년차 운영 학교 고도화를 위한 지원으로 질적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2026년 학력향상도전학교 운영 질 제고, 학습데이터 기반 맞춤형학습코칭 전문성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교학점제, 진로 연계 학습지원, 교과별 맞춤형 학습전략 등 학교 특성 기반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생의 성장 경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학력향상도전학교는 학생의 성장 경험을 구조화

것으로 분석됐다. 학생 개인의 학습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 진단·처방 중심 학습코칭, 단위 학교 자체 학습지원 모델 등이 다양해졌으며, 특히 농산어촌과 중소도시 학교에서 지역 간 학력 격차를 낮추는데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8월에 실시된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는 교과 보충·심화 프로그램 만족도 긍정평가가 9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학력향상도전학교의 운영 성과 발표, 학교 우수 사례 공유, 학습코칭 사례 발표와 함께 학습코칭 전문교사가 참여하는 분임 토의가 진행됐다. 학교 현장의 구체적 실행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부진 요인 진단, 목표 설정, 맞춤형 학습 지원과 성장 피드백 등을 논의했으며, 이를 내년 학교 운영계획에 직접 반영하는 실질적 환류가 이뤄졌다. 전북교육청은 2026년 학력향상도전학교 운영 질 제고, 학습데이터 기반 맞춤형학습코칭 전문성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교학점제, 진로 연계 학습지원, 교과별 맞춤형 학습전략 등 학교 특성 기반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생의 성장 경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학력향상도전학교는 학생의 성장 경험을 구조화

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력 지원 모델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학습데이터 분석과 맞춤형 지원이 결합된 전북형 학력향상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고 학생들의 배움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교육지원청, 17~29일 ‘테마가 있는 학부모교육’ 개최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기)은 오는 17일과 29일 박람회 교수와 한재우 작가를 초청해 ‘테마가 있는 학부모 교육’을 개최한다. 이 교육은 정신건강·관계 회복, 자기주도 학습·공부 전략 등 학부모 관심도가 높은 주제로 구성,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가정이 교육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첫 강의는 오는 17일 오후 4시, 군산대학교 노관순홀에서 열린다. 두 번째 강의는 오는 29일 오후 4시 군산대학교 교충교육에서 진행된다. 강의 참여 신청은 군산교육지원청(열린마당-군산학부모교육-교육신청)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이성기 교육장은 “이번 학부모 교육이 심리적 안정과 학습 지원 역량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민호 기자